두번째 미니음반 '데블'로 1년9개월만에 솔로로 돌아온 최강창민

"내 안에 있는 '쿨 앤 섹시' 보여주겠다"

'에일리언' '피버' 등 6곡 수록
타이틀곡 '데블' 가사 직접 써
"데뷔 19년차 활동 팬들 덕분"
유노윤호 "자판기 같은 동생"

'성숙한 남자의 섹시미!'

어느덧 서른 중반을 달려간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막내로 데뷔해 올해 19년차를 맞은 최강창민(심창민·34)이 "내 안에 있는 '쿨 앤 섹시'(cool and sexy)함을 보여주고 싶다"며 농후한 매력을 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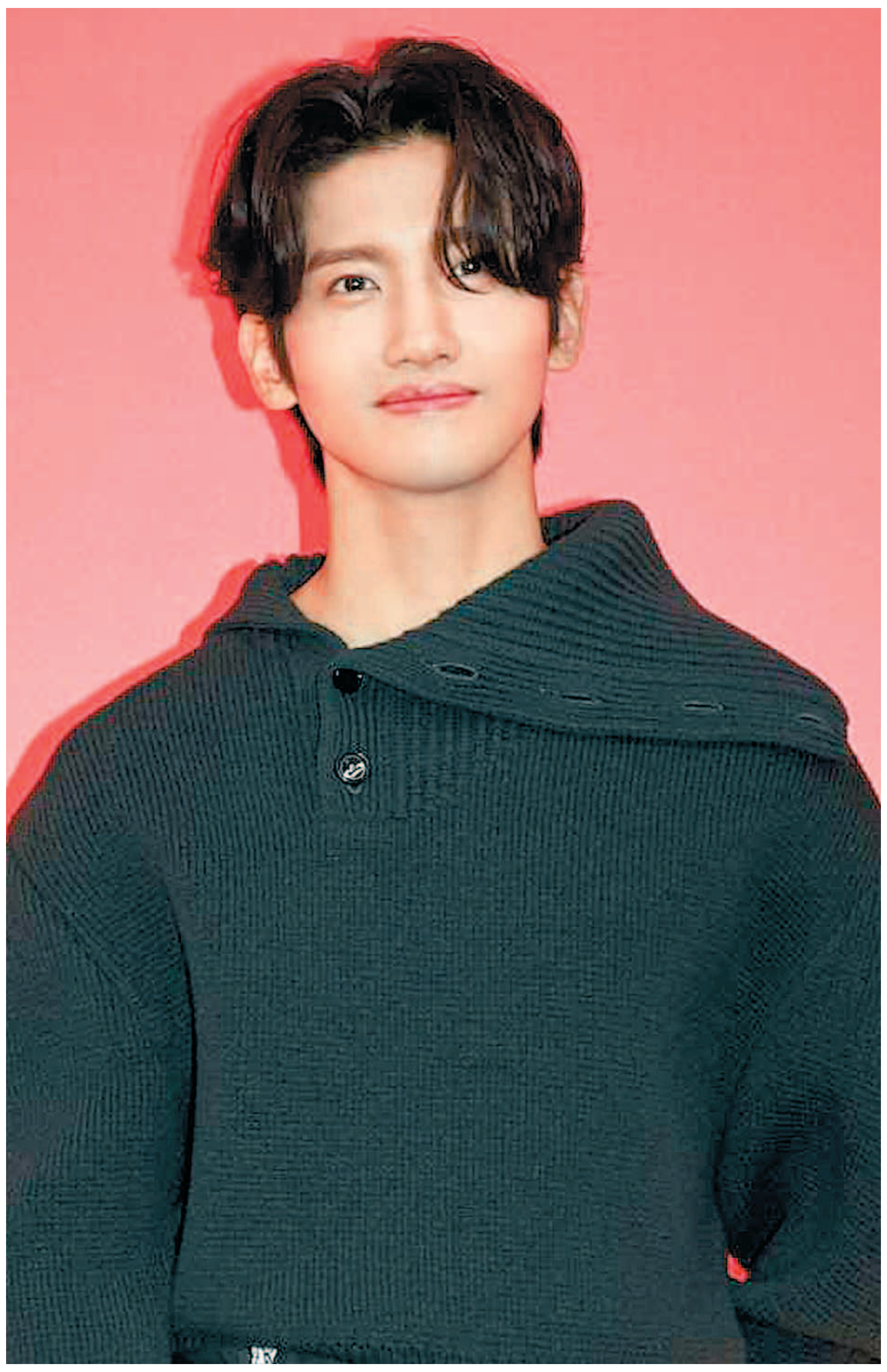
그는 13일 오후 두 번째 미니음반 '데블'(Devil)을 발표하며 1년 9개월 만에 솔로 가수로 돌아왔다. 2020년 4월 '초콜릿'(Chocolate)을 선보인 후 그해 9월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그 사이 그는 한층 더 성숙해졌고, 이번 앨범에 가득 담긴 매력은 앨범 제목부터 전체적인 콘셉트까지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는 그룹의 멤버인 유노윤호가 MC를 맡고 함께 했다.

"첫 솔로 미니앨범에도 그랬고, 제 의도는 한결같았어요. 뭔가 포장하고 꾸며내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다양한 페르소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했죠. 제 안에 쿨함도 있을 것이고, 편안함도 있어요. 많은 분이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섹시함도 있어요. 성숙한 남자의 자연스러움, 조금 더 농후해져 가는 저의 매력을 다채롭게 보여드리고자 했어요."

자신의 매력을 설명하며 애쓰는 동생이 안쓰러웠던지 옆에 있던 형, 유노윤호가 한마디 거들었다. "창민이는 자판기 같은 아이예요."

그는 "자판기에는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음료들이 있지 않나"며 "어떤 버튼을 눌러도 그 맛을 표현해내는 아티스트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산 부부 같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이 13일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데블' 발매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새 앨범에는 유노윤호의 설명처럼 최강창민의 다채로운 보컬의 매력이 돋보이는 '에일리언'(Alien), '피버'(Fever) 등 6곡이 수록됐다.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은 스웨덴 출신 아티스트 겸 프로듀서 알렉스 루노가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가사는 최강창민이 직접 썼다.

"원곡은 치명적인 악마를 표현한 곡이지만, 악마의 속삭임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담아보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사를 썼어요. 유영진 프로듀서께서 '작사 경험이 있으니 도전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해서 하게 됐죠. 제가 썼다고 해도 회사 안의 평가에서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절대!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채택해 주셨어요. 하하하!"

데뷔 19년 차가 된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할 게 많고,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트렌디한 가창법도 등한시하지 않고 배워야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대중가요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리드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는 이유도 팬들의 응원 덕분에 서는 게 아닐까 해요. 진부한 대답일 수 있지만 올해 초 '내가 왜 지금까지 가수를 해왔고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날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One p!ck 업 앤 다운

김동희, 학폭 의혹 1년만에 사과 "또 다른 오해 두려워 용기 못냈다"

김동희

배우 김동희(23)가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이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희는 13일 소속사 앤피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그 분들(피해자)에게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저를 크게 혼냈고, 어머니와 함께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께 사과를 드렸다"면서 "이후 서로 함께한 시간이 많아 친구와 그 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바로 사과하고 싶었으나 나의 사과가 하지 않은 모든 일 또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까 두려워 용기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김동희 측은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일 A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반박하자 뒤늦게 사과했다. 싸늘한 대중의 반응에 연예계 복귀 시점은 더욱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논란에 휩싸인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유지혜 기자

조신함 대신 당당함…송지아에 열광하는 이유

송지아

장원영

한소희

개성·자신감…MZ세대 아이콘
장원영 "내가 제일 소중" 공감
한소희 솔직한 매력…여성팬↑

'미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당당하고 솔직한 매력을 내세운 스타들이 새로운 미인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 한소희,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인플루언서 송지아 등이 대표적이다. 개성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매사 자신감 넘치는 이들에게 열광하자 각종 콘텐츠 제작진 사이에서도 섭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송지아는 최근 남녀 출연자간의 러브라인을 그리는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솔로지옥'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내 강점은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라며 "어떤 여성이 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감이 돋보이는 화법으로 화제를 모았다.

8일 '솔로지옥' 최종회가 공개된 이후 JTBC '아는 형님',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스타성까지 입증하고 있다. 각종 잡지 화보와 화장품 브랜드 광고모델로도 나서며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한소희와 장원영은 각각 블로그, 예능프로그램 등으로 개성을 드러낸다. 한소희는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꾸미지 않은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온라인상의 '밈'을 응용해 위트 있게 표현한 게시글이나 개성 넘치는 패션 사진들을 올려 10∼20대 여성 팬들이 몰리고 있다. 장원영은 최근 유튜브 콘텐츠 '차린건 없지만',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가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며 자기애의 중요성을 역설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다.

자연스럽게 각종 콘텐츠도 이들의 외모보다 솔직하고 주체적인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솔로지옥'의 김재원 PD는 "송지아가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올라섰다"며 "요즘 MZ세대들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개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 매력을 느낀다. 그런 모습을 콘텐츠에도 잘 드러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